

도전과 응전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의 명저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 (Challenge and Response) 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살아남은) 민족과 문명은 번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명은 사라졌다. 또 도전이 없는 민족이나 문명도 무사안일에 빠져 사라지고 말았다. 존 F 케네디는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책이라고 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야만 그 자국을 남긴다.

재미있는 사실은 고대문명과 세계 종교지의 발상지가 모두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이다. 토인비는 문명을 일으킨 자연 환경은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대부분 가혹한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응전한 사례로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미노스 문명, 인도문명, 중국 문명등을 들수 있다. <나일강의 선물>은 무엇인가. 나일강변은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짓기에 적합하였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범람 시기를 측정하기 위해 천문학, 태양력이 발달하고, 경지 측정을 위한 기하학이 발달, 제방 공사를 위한 도드래와 수레가 발명되었다. 중국도 강물이 유순하고 땅이 비옥한 양쯔강이 고대문명의 발원지가 아니라, 해마다 범람이 반복되는 황하강이 고대문명의 발원지다. 성경에서도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약속받은 땅이 과연 <젓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을까>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역사학자들도 많다. 그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래바람이 부는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다. 약속의 땅은 실체가 쓸모없는 척박한 땅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유대민족의 도전이었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양들을 키워 <젓과 꿀이 흐르는> 살기 편한 땅으로 만들었다는 <응전>이다.

토인비의 <청어이론> 혹은 <메기이론>이 있다. 영국인들은 아침을 푸짐하게 먹는데 그 중에서 청어는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다. 그래서 일명 영국인들을 ‘연체청어’ 라고도 한다. 그런데 청어는 북해나 베링해협 같은 먼 바다에서 잡히는데 배에 싣고 오는

동안 청어들은 대부분 죽는다는 것이다. 간혹 살아있는 청어는 죽은 청어의 몇배 비싼 가격에 팔린다는 것이다. 그런 어느날 청어를 운반해 오는 수조에 물메기 (곰치 혹은 아귀와 흡사한 모양) 몇마리를 넣었더니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힘껏 도망다니는데, 도착할 때까지 대부분의 청어가 살아 있더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꾸라지 양식장에 메기 몇마리를 함께 넣었더니 대부분의 미꾸라지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즉 토인비는 <청어 이론>을 통해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는 역사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도도새의 범칙>이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도도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도새는 인도양의 작은 섬 모리셔스에서 서식하고 있었다. 이 섬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먹이가 풍부하며 천적이 없는 에덴동산과 같은 곳이었다. 처음 이 섬을 발견한 포르투갈 선원들이 날아가지도 못하는 이 새를 보고 ‘바보, 멍청이’라는 포르투갈어로 <도도>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외부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유입되면서 이 도도새는 멸종하고 말았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외부의 침략이나 도전없이 스스로 사라진 <마야문명>이 있다. 기원전부터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다가 AD900 년경에 갑자기 사라졌다. 여러가지 학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외부의 침략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시련과 도전을 많이 받은 민족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3천년의 역사를 떠돌아 다니면서 수많은 도전에 응전하여 살아 남은 민족이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된 것이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자신의 <생의 수레바퀴>는 굴러가다가, 멈추어 섰는가. 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다. 도전을 멈춘 인생은 굴러가기를 포기한 수레바퀴와 같다. 도전하는 삶이 청춘이다. 믿음 생활도 도전의 연속이어야 한다. 지금의 도전과 시련이 힘겨울 수 있다.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힐수도 있다. 가난하고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무너져서는 안된다. 아니 멈추어서는 안된다. 멈춤은 몰락의 시작이다. 응전하여 살아 남아야 흔적을 남길 수 있다. 50 대 이후의 한인 세대들은 기억한다. 까막득한 깡촌에서 자식들을 8명, 9명씩 주리주리 낳고

키우면서, 보리고개에 먹을 것이 없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살아남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세대들은 죽지 않고 살아 남았기에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이다. 지나온 도전과 시련이 생존의 에너지가 됨을 감사하자. 하지만 지금의 풍요로운 자식 세대들은 어떠한가. 이들이 <도도새>가 되는 것은 아닌가.

<몰락의 법칙>이 있다. 인류 역사에 영원한 국가도 없고 영원한 부자도 없다. 부자가 3대를 못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저명한 컨설턴트 짐 콜린스는 그의 저서 <위대한 기업은 어떻게 망하는가>에서 성공의 도취가 몰락의 전조라고 진단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기업은 성공에 도취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몰락의 1 단계이다. 성공에 도취하고 나면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될 것만 같다. 즉 '원칙없는 확장의 단계'로 접어든다. 그것이 몰락의 2 단계이다. 이렇게 3 단계, 4 단계, 5 단계를 거치면서 풍요로움은 몰락으로 종말을 고한다.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고 부자로 성공했다고 껌죽대지마라. 지금의 가난은 풍요가 기다리고, 지금의 풍요는 몰락이 기다린다. 인생은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내 생의 수레바퀴로 남길 흔적을 고민하자..